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소통이룸 협동조합 대표 전 용의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 및 공모사업

■ 주민참여예산 공론장

：동토론·주제별토론·600인토론 (주민·청소년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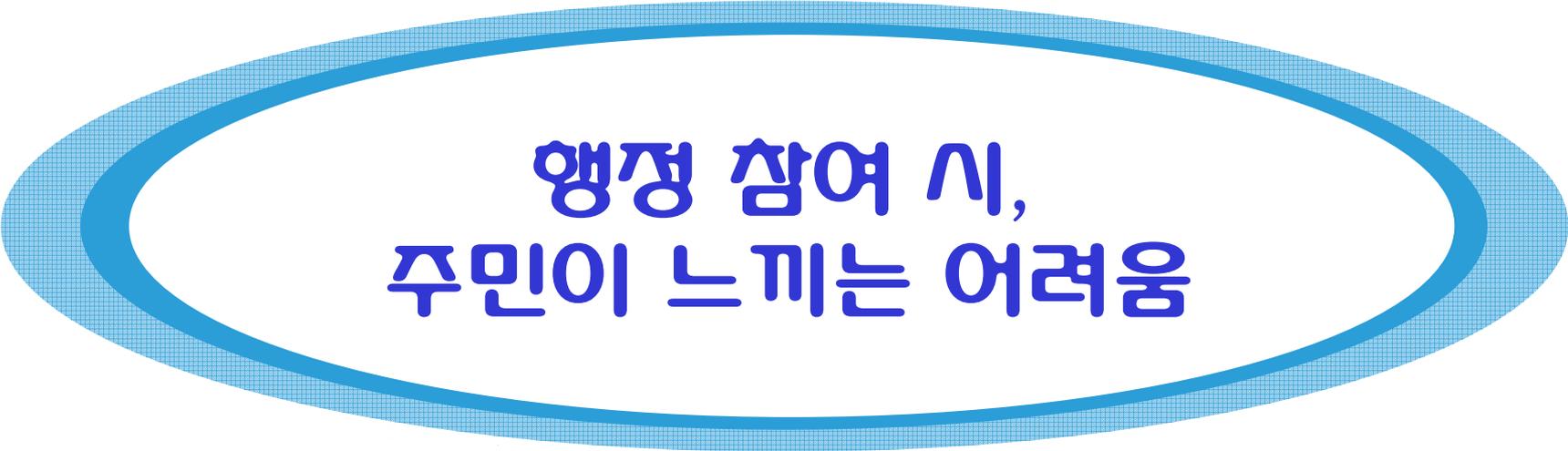
■ 염치(민관) 워크숍

■ 도시재생 워크숍

■ 마을공동체 사업

진정한 주민참여란?





**행정 참여 시,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



참여보다는 동원의 느낌

- 자발적인 주민참여라기보다 행정의 필요(목적달성)에 의한 요청(강요)이다.
- 참여보다 동원이라는 생각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외에 일반 주민발굴에 소극적이다.
- 참석 인원수에 큰 의미를 둔다.
(질적인 요소보다 양적인 요소에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제한적인 정보공개와 홍보 부족

-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가 연수막이나 홈페이지 외에는 부족하다.
- 참여의사가 있지만 정보나 홍보가 부족하여 기획을 놓친다.
- 주민참여의 요청은 있으나 목적과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정보(홍보)가 없다.
-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 주민이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귀찮아한다.
- 정보공개에 미온적이다.
- 주민참여정책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 부재

- 주민참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 주민참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난이도에 따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참여

- 주민들이 열심이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은 법규, 조례, 관례(전례)상 불가하다는 경우가 많다. 때론 이기주의라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 주민들이 토론하는 다양한 공론장이 있지만 공론장에서의 결과가 실제 실행 될지에는 부정적이다.
- 주민참여가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필요한 만큼만 동원(소극적 참여)시키고 참여하고 싶을 땐 제한적인 참여만 가능하다.
- 주민참여가 무조건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이 부담스럽다. 금전적인 것 혹은 그 외의 참여를 독려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통

- 행정 용어부터 절차 및 서류의 복잡함에 지레 포기하게 되거나 어려우니 행정에 이관하라고 한다. 주민 입장에서 유연성(융통성)이 아쉽다.
- 단체나 대표성이 없을 경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개인 의견 무시-민원의 성격으로 취급한다.)
- 민원성이 강하지 않으면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일이 커져야 움직이는 행정)
-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려 했지만 처음부터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 (참석빈도, 행정서류 등)이 많아 참여 의지를 꺾는다.
- 공무원과 같은 직무력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실행하는 행정처리(사업집행, 외계처리)가 미흡한 경우 책임지는 것이 걱정된다.

권한 없는 참여

-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뻔한데 주민참여를 아라고 한다.
- 제안은 가능하도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 행정에서는 주민참여라 하지만 상담, 정보제공과 같은 형식적인 참여인 경우가 많다.
(심사 권한은 있으나 심사의 내용과는 별개로 행정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나 참여의 정도가 제한적이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 행정은 주민이 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안정된 참여의 방법

- 제한적인 시간 및 장소로 인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어렵다. 원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없다. 다양한 계층,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 주민참여방법(위원회, 공청회, 예산편성, 정책토론청구, 주민의견조사)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수많은 주민의 다양성에 비해 참여 방법 및 경로가 안정된 느낌이다.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자세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채널의 홍보

- 목적과 내용이 명확한 정보(홍보)는 주민참여정책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동기로서 작용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정보)는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참여기회를 촉진한다.
- 관심 있는 주민참여의 분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주민발굴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며 행정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의 필요성

- 주민까지, 주민참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퍼실리테이션 등), 참여 정도(수준)에 따른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하여 주민참여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적인 공론장 운영

- 개인의 욕구를 시작으로 가족, 이웃 넓게는 지역의 욕구를 살펴보며 지역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토론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의식(시민성)을 성숙하게 한다.
- 상시적인 공론장은 점진적으로 단순 의견 교환에서 토론, 숙의 과정에 이르며 개인의 관점을 넘어선 공공성, 공익성을 형성하게 한다.
- 다양한 주제의 숙의 과정을 통해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는 주민참여의 기초를 공고히 다질 수 있다.

맞춤형 주민참여의 장

- 지역에는 수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그 다양성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심과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참여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첨제 등 다양한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는 참여 계층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 및 상황에 놓인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이 안정적이고 제한적이므로 맞춤형 주민참여의 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행정의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 주민은 책임감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행정 용어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여 주민들의 경험과 상의적인 생각을 극대화한다.
- 행정의 직무력을 강제하지 않는다. 행정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 단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한 개인의 의견이라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 단위의 주민참여의 경험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으로부터의 권한 부여(이양)

- 주민참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문제를 주민(단체)이 스스로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하도록 행정에 권위있게 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처음부터 모든 주민참여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부터 행정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이양)하고 정책형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행정과 주민의 책임과 역할을 상호보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주민의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이 더해진다면 정책수행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호신뢰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 권한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더 많은 주민의 참여 기대

- 늘 아던 사람이 참여하고 학업, 직장 등의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대안 마련 필요

- 균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지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설득하고 결성하는 과정을 체험

- 주민참여가 나의 삶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